



니부어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의 함의에 관한 곡해 및 오독* : 공교육에서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의 의미 이해 실태와 관련하여

선우현¹

《 요 약 》

니부어 윤리사상의 핵심이 담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테제를 둘러싸고 이루어진 다양한 해석과 이해 방식은 적지 않은 오해와 곡해를 낳고 있다. 특히 그의 윤리학에 관한 잘못된 해명과 내용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결코 작지 않다. 이 글은 이 같은 문제 상황을 고려하면서, 니부어 윤리사상의 핵심 논지의 하나인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테제에 담긴 본질적 함의와 이론(구성)적 진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그 실상을 온전히 드러내 보이는데 일차적 목표를 두고 있다. 그에 따라 도출된 ‘잠정’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의 도식과 그로부터 도출된 ‘개인윤리 대 사회윤리’ 간 범주적 구분에 내재된 니부어의 인간관 및 이성관은 반(反) 합리주의적·계몽주의적 특성을 함유한 것으로서, ‘이상주의’에 배치되는 냉정한 ‘현실주의’에 기반한 것이다. 둘째, ‘도덕적 인간(개인)과 비도덕적 사회(인간 집단)’ 간의 대비적 구도는 ‘약한 상대적’ 구분이다. 해서 니부어는 이를 ‘비도덕적 개인과 보다 더 비도덕적인 사회’로 개칭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술회한다. 셋째, 개인윤리에 대해 니부어가 제기한 비판의 핵심은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비윤리적 현상에 관한 해명 및 해결력의 결여’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에 더해 ‘개인은 도덕성의 강화를 통해 도덕적 인격체로 완성되어 나간다’는 이상주의의 과도한 ‘필연적’ 낙관론을 논박하는 데 있다.

주제어 :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비도덕적 인간과 보다 더 비도덕적인 사회, 해석상의 곡해, 현실주의, 약한 상대적 구분, 과도한 필연적 낙관론

1. 청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hyunsunw@cje.ac.kr (주저자)

I. 들어가는 말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 윤리학자이자 신학자, 문명비판가인 니부어(R. Niebuhr)¹⁾의 저서 가운데 단연 그 학술적 가치와 대중적 지명도가 높은 것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Moral Man and Immoral Society)』이다. 이 책에서 개진된 주요 도덕철학적 논지들은 기독교 윤리학을 비롯하여 실천철학 및 사회윤리학 분야 등에서 매우 긴요한 이론(구성)적 핵심 요소와 내용 체계로 자리하고 있으며, 주된 윤리 사상적 쟁점 및 탐구 대상으로 활성화되어 다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핵심 테제는, 그간 개인윤리의 시각에서 인간의 도덕성과 윤리적 행위를 논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 구조 및 제도상의 도덕적 결함을 비판적으로 통찰하여 비도덕적인 인간 행태를 탐구하는 새로운 ‘사회 윤리적 시각’을 제공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황경식, 2008: 12-13; 정원규, 2002: 261).²⁾ 곧 개인의 도덕성과 이성적 역량을 계발·강화하여 도덕적 인간으로 길러냄으로써, 그러한 개인들로 이루어진 사회 역시 도덕적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던 기존의 인간관 및 교육관, 윤리관의 한계에 대한 치열한 자기 비판적 통찰을 불러일으키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와 함께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라는 상호 대비적인 ‘이원(론)적 윤리적 접근 방식’의 구축을 통해, 윤리학 분야는 개인의 (부)도덕성 뿐 아니라 사회 구조의 (부)도덕성과 (비)윤리적 실태를 비판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기에 이르렀다.³⁾

아울러 그 같은 이원(론)적 고찰 방식에 입각해 구성된 ‘도덕적 인간 대 비도덕적 사회’라는 상호 비교적 도식으로부터, ‘개인으로서의 인간’은 본성상 도덕적이며 이성적 능력을 통해 이기적 욕망 등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도덕적 존재라는 입론이 도출되어 나왔다. 동시에 그러한 도덕적 개인들로 이루어진 ‘집단으로서의 인간’, 즉 공동체나 인간 사회는 집단화된 인간의 욕망과 이기적 충동이 인간 이성에 의해 온전히 통제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이성 자체가 인간 집단의 본능적 욕망과 이기적 충동을 충족시키는데 기여하는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는 비판적 논변이 정립되었다. 이러한 잠정적인 윤리적 진단은 니부어에 의해 새롭게 정초된 사회윤리의

1) ‘Niebuhr’라는 인명의 표기와 관련해, 현재 국내에서는 ‘니버’와 ‘니부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한때 최근 들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니부어’가 사용되고 있다. 해서 이 글에서는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니부어로 표기하고자 한다. 다만, 저서나 논문 제목 등에 사용된 ‘니버’의 경우는 원문 존중의 차원에서 그대로 표기하였다.

2) 이와 다소 결을 달리하면서 손봉호는 ‘사회윤리란 우리가 말하는 윤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윤리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붙여지는 것’이라는 견해를 개진한다(손봉호 외, 1999: 21).

3) 이 점에 대해 황경식은 다음과 진술하고 있다. “이제는 단지 개인의 양심이나 행위만이 도덕 판단이나 윤리적 술어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 구조나 체제 역시 도덕적 술어의 대상이 되기에 이른 것이다”(황경식, 2008: 13).

관점을 기반으로 한 '개인윤리 대 사회윤리'라는 대비적 고찰 구도를 통해 확보된 것으로서, 오늘날 '개인으로서의 인간'과 '집단으로서의 인간'에 관한 유력한 도덕적 평가이자 표준적인 윤리적 해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나아가 이러한 이원(론)적 윤리적 접근 방식은 한국의 공교육, 특히 중·고등학교의 '도덕과 교과' 교육에도 도입되어 적극 활용되고 있다. 가령 중학교의 『도덕』이나 고등학교의 『생활과 윤리』와 같은 교과서에는 '사회 정의'나 '사회윤리의 필요성' 등의 제목 하에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간의 상호 비교적인 이원(론)적 조망 틀이 니부어에 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곳곳에 등장하여 논의되고 있다(이호중 외, 2018: 84; 노영준 외, 2018: 84; 정창우 외, 2018: 90).

이 때 개인윤리는 개인의 잘못된 이기심이나 비양심 등이 부도덕한 행태의 주된 요인이며, 따라서 실천 의지와 습관 등 개인의 도덕성 함양을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는 윤리체계로 설명된다. 그런 만큼 개인은 도덕적 판단 및 행위 능력, 윤리의식의 공고화를 통해 도덕적으로 사유하고 행위할 수 있는 자율적·이성적 존재로서 규정되고 있다. 그에 비해 사회윤리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사회구조 및 제도의 비윤리성에 주목하여, 개인의 도덕의식 고양과 함께 사회 구조와 제도, 환경의 결함을 바로잡아 공동선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윤리체계로 소개된다(차우규 외, 2018: 92). 특히 사회윤리는 오늘날 형식적 차원의 민주화를 이룩한 한국사회에서, 실질적 민주화를 구현해 나가는 데 긴요한 민주적 시민의식의 고양이나 사회적 갈등의 해법에 관한 가이드 내지 지침으로서 읽혀지고 이해되고 있다는 평가(문시영, 2022: 154)는 상당 정도 의미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 학술적 기여, (윤리)교육적 의미와 의의 등에도 불구하고, 니부어의 사상적 핵심이 담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테제에 관해 이루어진 다양한 해석과 이해 방식은 적지 않은 오해와 왜곡을 야기하고 있다. 더욱이 그로 인해 빚어진 니부어의 윤리학적 논변에 관한 잘못된 해명과 내용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자못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가령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상호 대비적 구도를 통해, 상당수 도덕과 담당 교사와 학생들은 개인의 도덕성과 사회 집단의 도덕성은 서로 선명하게 '대립'되는 '결정적 차이성'을 지니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양 비쳐진다.⁴⁾ 그에 따라 '개인은 본성상 도덕적 존재이며 이성적 판단 및 행위 능력을

4) 가령 교과서 집필자들이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니부어는 (...) 따라서 개인의 도덕성과 사회 집단의 도덕성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박찬구 외, 2019: 30) 같은 구절은, 다분히 양자 간의 도덕성이 '선명하게 대비되는 것'으로 이해하게끔 이끌 여지를 주고 있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간의 구분을 이해하기 쉽도록 해주기 위해 제공된 도표들의 경우에서도, 예컨대 '개인의 도덕적 완성 중시' 대 '공동선과 사회 정의 실현 중시'(차우규 외, 2018: 92)라는 상호 비교 내용은, 양자의 도덕성 간에 '절대적인 대립적 차이'가 있는 것 인양 오인시킬 가능성이 있다.

통해 자신의 도덕성을 고양시켜 나갈 수 있는 이성적 존재'라는 이해방식이 별다른 반박이나 이의 없이 수용되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⁵⁾ 반면 '인간 집단 내지 사회는 충동이나 이기적 욕망을 이성을 통해 온전히 제어할 수 없는, 구조적으로 부도덕하며 비이성적인 존재'라는 믿음이 자연스레 내재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이해 방식 및 수용 실태는 니부어 윤리사상이 전달하려는 핵심 논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그의 진정한 윤리학적 이론(구성)적 의도와 입장을 거스르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의 사회윤리 체계의 '인간관'과 '이성관'에 정면 배치된다.

이 글은 이 같은 문제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니부어 사회윤리학의 핵심 논지의 하나인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테제에 담긴 본질적 함의와 이론 구성적 진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그 실상(實相)을 온전히 드러내 보이는데 일차적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고찰 과정에서 '도덕적 인간'이라는 언표를 둘러싸고 빚어지는 다양한 오해와 곡해, 오류 등의 난점을 지적하고, 그로 인해 초래되는 부정적인 교육 실태, 특히 중·고등학교 '도덕과 (관련) 수업'에서 야기되는 문제적 실태를 비판적으로 규명해 볼 것이다. 더불어 '도덕적 개인 대 비도덕적 인간 집단' 간의 윤리(학)적 대비구도와 그로부터 도출된 '개인윤리 대 사회윤리' 간 이원(론)적 범주적 구분을 통해 전달하려는 니부어 사상의 핵심 메시지와 그 의미, 그리고 그를 위한 온전한 독해 방식을 분석 검토해 볼 것이다. 끝으로, 공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 대한 오독과 잘못된 해석을 시정하고 바로 잡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⁶⁾에 관해 '단조적(緘綃的)' 형태로나마 몇 가지 제언을 개진해 볼 것이다.

II. 문제 상황: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를 둘러싼 해석상의 곡해 및 오해

일반적으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개진된 핵심 메시지는 책 제목에서 드러나듯 '개인으로서의 인간은 도덕적인데 반해, 개인들이 모여 구성된 인간 집단으로서의 사회는 비도덕적이다'라는 명제로 입혀져 왔다. 이는 윤리학 및 도덕(과) 교육 등 여러 학술 분야에서 이른바 '정설(定說)'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하다. 그에 따라 흔히 '개인들의 비이기성은 국가의

5) '도덕적 인간(개인)'의 함의에 관해 제대로 된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니부어에 따르면 개인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도 그가 사는 사회의 도덕성이 바르지 않다면 개인의 노력은 소용이 없다"(정창우 외, 2018: 90)는 구절은 마치 '개인'은 본래적으로 도덕적인 존재인 양 임하게끔 유인한다. 또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탐구활동' 난에 제시된 "개인윤리와 집단윤리는 같을까, 다를까?"(박찬구 외, 2019: 21)의 경우도, 다분히 '개인은 윤리적 존재인데 반해 인간 집단은 비윤리적 존재'라는 고정 관념을 심어줄 강한 메시지로 작용하기 쉽다.

이기성으로 전환된다'는 명제야말로 니부어 윤리 사상의 전제이자 제1명제인 양(이한우, 2006: 373) 주장되기도 한다.

이러한 해석 방식에 따르면, 개인은 이성적 판단 및 행위 능력을 지닌 존재로서 본능이나 욕망, 이기심을 이성애 의해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도덕적 행위자, 무엇보다 자율적인 '이성적 주체'로서 간주된다. 그에 비해 도덕적이성적 존재인 개인들로 이루어진 결사체나 민족 혹은 계급 집단 등의 '인간 사회'는⁶⁾ 집단화된 이기적 욕망이나 충동적 욕구를 이성을 통해 온전히 통제하지 못한 채 제멋대로 발현시킴으로써 다른 집단이나 공동체, 사회 등과 충돌하고 투쟁하는 비도덕적인 존재, 무엇보다 비이성적 존재로서 규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니부어의 윤리학적 논지에 관한 '반편적(半偏的)'인 진리치에 해당된다. 나머지는 니부어의 논변을 온전히 읽어내지 못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독 내지 오류에 가깝다. 특히 '개인으로서의 인간은 도덕적인 행위자이며 이성을 통해 이기심이나 잘못된 욕망을 조정·제어할 수 있는 합리적·이성적 존재'라고 바라보는 것은, 인간의 실체를 '현실의' 비도덕적인 양상 및 측면에서 찾고자 한 니부어의 '인간관'과 그에 기반 한 '이성관'의 핵심을 제대로 간취하지 못한 것이다.

다음으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이분법적 대립 구도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도덕적임에도 불구하고, 집단이나 공동체, 사회는 구조적으로 비도덕적 결함과 속성을 내장하고 있다는 입론을 해명하는 도식으로 오랜 기간 읽혀져 왔다. 나아가 그로부터 저 유명한 '개인윤리 대 사회윤리'라는 두 가지 윤리적 접근 및 통찰 방식이 개진되어 나왔으며, 니부어는 오늘날 새로운 사회윤리의 지평을 개척한 선구적 사상가로 자리매김 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적 해석 또한 오해와 곡해의 여지를 강하게 남기고 있다. 물론 사회윤리의 관점을 새롭게 정립하여 개진한 니부어의 윤리사상(사)적 기여는 평가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도 상당 정도 니부어 윤리사상의 진의와 핵심적 논지가 왜곡 뒤틀리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인간의 본래적 심성을 '다분히' 비도덕적인 속성에 기울거나 그에 바탕을 둔 것으로 파악하려는 니부어의 인간 이해 방식에 관한 '몰이해'가 자리하고 있다. 동시에 그 같은 잘못된 이해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개인윤리에 관한 설명 방식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사상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고찰을 감행토록 호도하고 있다.

셋째, 강조점이 어디에 두어지는가에 따라 앞의 문제와 유사한 문제라 할 수 있는 것으로, 니부어의 인간은 근대 계몽주의에 토대를 둔, 이성적이며 주동적인 자기 혁신적인 실천 주체인

6) 니부어가 말하는 '사회'는 개인을 넘어서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집단'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결사체, 인종, 민족, 계급, 국가, 국제 사회 등이 망라된다(이한우, 2006: 372).

양 얽혀지고 있는 문제점이다. 비록 사회 구조의 비윤리적 결합으로 인해 인간 사회는 비도덕적인 사회로 귀착되지만, 인간 자신은 이성적 인식 및 판단 능력을 통해 도덕성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자율적이며 합리적인 도덕적 존재로 발전해 나간다는 근대 계몽주의적 인간관을 피력하고 있는 것인 양 해석되고 있다. 요컨대 ‘인간 집단’과는 달리, ‘인간 그 자체’는 이성을 통해 비이성적 욕망 등을 제어하면서 자신을 윤리적인 주체로 완성해 나가는 ‘자기 혁신적 존재’라는 낙관론적·진보주의적 인간관을 개진하는 것으로 읽혀지고 있다. 그런 만큼, 니부어의 인간에 대한 시각은 근대 자유주의나 사회주의의 인간 이해 방식과 동일하게 그것들의 이념적 토대인 계몽주의의 관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파악된다(니부어, 2017: 55; 이창희, 2019: 420; 최경석, 2017: 198). 다만,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이성적 존재인 인간들의 주체적인 사회 변혁적 실천을 통해 인간 집단 역시 합리적이며 윤리적인 공동체로 구현되어 나갈 것이라고 보는 점에서, 니부어와 차이가 난다. 니부어는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화된 인간 사회 내에서, 인간들은 비합리적인 이기적 주체로 행동해 나감으로써 사회 또한 비윤리적인 존재로 귀결된다는 비관적이며 퇴행적인 입장을 드러내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드러나듯이, 니부어의 인간의 실체에 관한 비판적 통찰은 계몽주의를 바탕으로 삼은 개인주의적 자유주의나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가 내건 인간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보다 적확히 말해서, 니부어의 윤리사상은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관한 진보주의적 입론을 표출한 자유주의나 사회주의의 인간 및 이성에 관한 관점을 거부배척하고 있다.

니부어에 의하면, ‘관념론’에 기반 한 자유주의나 ‘유물론’에 의거한 사회주의 양자는, 인간 및 인간 이성에 관한 ‘무조건적인’ 전폭적 신뢰로 인해 오늘날 인간 사회가 봉착한 구조적 모순과 비도덕적인 야만적 실태를 증폭시키는 데 일조했다. 요컨대, 자유주의를 위시하여, 계몽주의 및 합리주의에 근거한 다양한 근대적 시대사조들이 지녔던 기본적 입장, 즉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이성적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게끔 계도(啓導)함으로써 ‘사회 내 악(惡)’을 제거·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은, 니부어가 보기에 근거 없는 낙관론이자 단순 무지한 역전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는 이기적 특성이나 본능적 욕구와 교만에 내재한 폭력성 등 인간의 ‘본래적 한계’를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이국헌, 2013: 5-7; 심승환, 2018: 27-31; 고범서, 2007: 130-131).

끝으로, 보다 심각한 실존적 문제 상황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이분법적 구분에 의거해 니부어는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합리적·도덕적 존재로 규명하고 있다는 해석이 소위 ‘정통 해석’으로 간주되어 ‘공교육 영역’에서 학습되고 있는 실태이다. 곧 학교 현장의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도덕과 담당 교사들은, ‘개인은 이성을 통한 자기 성찰 및 비판을 통해 윤리의식을

고양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적 존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입론⁷⁾을 니부어의 본래적 입장으로 신뢰하고 있는 양 보이며, 그에 따라 이를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중등 교사들 사이에서, '도덕적 인간 대 비도덕적 사회'라는 대립 구도는 '개인의 도덕성과 사회 집단의 비도덕성'을 대비적으로 요약해 보여주려는 니부어의 이론(구성)적 의도가 담긴 도식이라는 해명이 '거의 상식화되어' 받아들여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집단적 존재가 아닌 개인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이성적 능력을 통해 도덕성의 함양과 실천 의지의 단련⁸⁾ 등을 통해 도덕적으로 판단·행위할 수 있는 자율적·합리적 주체라고 주창하는, 기존의 개인윤리의 시각과 접근 방식이 니부어의 윤리사상 체계 내에 '여전히' 공고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읽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독법(讀法)은 이미 앞서 지적했듯이, 적어도 개인으로서의 인간은 비판적 성찰과 자각, 각성을 통해 온전히 자율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규제·제어할 수 있는 합리적·도덕적 존재라는 '계몽주의적 인간관'을 바탕으로 두고 이루어지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적 이성관과 계몽주의적 인간관은 니부어가 신랄한 비판과 거부의 대상으로 설정해 놓은 것들이다. 요컨대 니부어가 '도덕적 인간 대 비도덕적 사회'의 대비적 구도를 내놓은 것은, 계몽주의적 이상주의의 이성 및 인간에 대한 시각의 한계와 난점을 논파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실상을 감안할 때, 니부어의 윤리학적 아울러 인간론적 문제의식과 비판적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지 못한 채, 그의 윤리사상의 핵심과 열개를 곡해·왜곡하여 잘못된 내용을 공공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상황은—설령 그것이 일부에서만 행해지는 것이라고 해도—교육(학)적으로 심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교사는 적어도 학생들에게 '진리'와 '진실'만을 가르쳐야 한다는 교사론(論)에 비추어, 비록 의도치 않은 것이며 동시에 그러한 곡해가 교사의 탓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교사의 역할과 책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7) 가령 “그는 개인은 이타성 함양을 통해 도덕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고, 사회는 사회 구조와 제도의 정의를 지향할 때 도덕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김국현 외, 2018: 92)는 구절은 집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개인은 본래적으로 스스로 ‘자기 혁신’을 추구하는 이성적·도덕적 행위 주체인 것처럼 읽히게 만든다. 하지만 이는 니부어가 배격하고자 한 계몽주의에 기초한 과도한 이상주의적 인간(개인)관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또한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를 상호 비교하면서 개진한 개인윤리에 관한 설명 가운데 “개인윤리: 개인의 도덕적 결함에 초점/ 개인의 도덕적 완성 중시/ 개인의 도덕성 함양 및 바람직한 습관 형성, 개인의 도덕 원리 실천 강조”(차우규 외, 2018: 92) 같은 대목 역시, 니부어가 강하게 비판·배격하려고 한 ‘도덕성 함양을 통한 도덕적 인격체로의 성장’이라는 ‘인간 도덕성 고양의 필연성 체계’(이창희, 2019: 476)를 옹호하는 논변처럼 들리게 한다.

8) 니부어에 의하면, 인간은 비록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통해 믿음의 의(義)를 구현하기 보다 오히려 죄악을 저지르는 모순적 존재이다. 그런 연유로, 인간은 진보적 사회를 구현하거나 정의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보았다(이국현, 2013: 6).

III. 니부어 윤리사상의 진의 및 논지 : 비도덕적 인간과 한층 더 비도덕적인 사회

앞에서 우리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를 둘러싼 해석상의 오해와 곡해에 따른 문제 상황에 관해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이 때 드러난 문제적 사태의 핵심은 편의상 ‘이론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으로 나뉘 볼 수 있다.

먼저, 이론적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문제점은, ‘개인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니부어의 관점과 입장에 관한 명백한 오독이다. 나아가 그로부터 ‘개인윤리 대 사회윤리’의 대비적 도식에 대한 해명도 왜곡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곧 개인의 본성, 그리고 ‘개인의 도덕성 고양’과 연계된 개인윤리에 관한 한, 적어도 윤리사상 분야나 교육 현장에서 니부어는 근대 계몽주의에 기초한 자유주의적 낙관론이나 사회주의적 진보적 입론과 ‘동일한 관점’을 피력하고 있는 양 읽혀지고 있다.⁹⁾

물론 집단적 존재로서의 인간, 즉 인간 집단의 윤리적 실태, 아울러 사회윤리에 관해서는 계몽주의적 시각과 배치되는 비관주의적인 현실주의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는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미 검토해 본 것처럼, 니부어는 인간 집단 뿐 아니라 개인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 방식에서도 계몽주의나 합리주의 같은 이상주의 입론들에 전적으로 반(反)하는 관점과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실천적 차원의 문제로는 니부어 윤리사상에 관한 오해와 곡해가 담긴 해명이 마치 정통 해석인 양 교사들에 의해 무반성적으로 수용되고, 동시에 이것이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이론적 차원의 문제보다 그 심각성이 훨씬 큰 사안이다. 윤리학이나 도덕철학, 정치사상의 영역에서 학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치열한 논의나 논쟁의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적인 교육의 영역에서 학생들에게 잘못된 지식과 정보, 논지 등이 여과 없이 투과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 만큼, 현재 니부어 사상에 관한 관심이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다고 해서, 그로부터 빚어질 문제점들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하물며 최근 들어 니부어 윤리학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연구 분위기가 고조되고 교육적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잘못된 해석과 왜곡된 해명이 중고등학생들에게 ‘올바른 지식’인 양 제공되는 사태는 꽤나

9) 이 점과 관련해 니부어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꿈꾸었던 ‘합리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진행되는 역사적 전개 과정’이 구현되기 어려운 이유를, 인간이 파악하거나 제어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의미 구조(frame of meaning)’ 속에서 작동하는 역사의 드라마를 수용할 ‘겸손함(humility)’이 근대적 개인에게는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찾고자 한다(Niebuhr, 2008: 88).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현 상황과 관련해, 오늘의 시점에서 니부어 윤리사상이 제시하는 핵심 논지와 메시지, 문제의식과 그 의도 등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해 보는 것은 여러모로 긴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오독과 곡해로 인한 문제점의 심각성 및 중요성의 수준과 윤곽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왜 그것이 오독 내지 잘못된 이해나 해석인지에 관해서도 타당한 근거와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 개인적 존재로서의 인간: '그리 도덕적이지 않은' 존재

우선, 무엇보다 눈여겨 볼 대목은, 니부어의 인간관에서 '개인'으로서의 인간은 전통적으로 이해되어 온, 이성적 능력을 통해 비이성적 요소인 이기적 욕망이나 충동적 욕구 등을 적절히 통제하고 자신의 의지에 부합하게끔 제어할 수 있는 '자율적이성적 주체'로 규정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나아가 이의 연장선상에서 개인적 존재는 이성을 통해 본능과 이기심, 충동 등을 '온전히' 통어하여 보다 윤리적인 방향으로 행위해 나가는 '합리적인 도덕적 주체'로 간주되고 있지 않다. 비도덕적인 인간 집단만큼은 아니지만, 니부어가 바라보는 개인적 존재로서의 인간 역시 도덕적 존재로 '적극' 해석되고 있지 않다. 실상은 '보다 부도덕한 존재'에로 기울고 있다(고범서, 2007: 135-136; 심승환, 2018: 30).

이는 이성이나 이성적 능력에 대한 니부어의 신뢰나 믿음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에 기인한다. 아울러 그러한 불신 내지 회의적 시각은, 칸트(I. Kant)가 '경향성(Neigung)'이라고 칭했던 비이성적 욕구나 욕망, 본능이나 충동이 이성적 능력에 의해 적절하게 제어되지 못하고 있다는 다분히 경험적이며 현실적인 통찰에서 비롯된다. 다음의 언명이 이를 말해준다.

“이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다수 개인들에게 그들이 속해 있는 전체적 사회 상황을 이해할 만큼 충분하게 이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해주지는 못한다.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이성의 능력은 충동 간의 갈등, 특히 사회의 집합적 충동 간의 갈등을 막을 만큼 충분한 억제력을 반드시 제공해주는 것은 아니다”(니부어, 2006: 72).

물론 니부어는 아주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개인으로서의 인간이 '일정 정도' 도덕적 측면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한다. “개개인의 인간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도 고려하며, 또한 때에 따라서는 행위의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더욱 존중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도덕적이다”(니부어, 2006: 9).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도덕적임'은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화된 인간(집

단)의 부도덕성 및 비윤리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그러하다는 것임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집단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부도덕성에 비해 ‘비교적’ 도덕적이라는 것이지, 개인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본성적으로’ 도덕적 존재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니부어는 이 점을 자신의 후기 저작물에서 분명히 확인해 주고 있다.

“정치철학 분야에서 나의 첫 번째 모험적 시도로 1932년에 출판된 책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였다. 그 책의 주제는 분명했다. 계급, 종족, 국가의 집단적 이기주의가 개인의 이기주의보다 더 완고하고 지속적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중요한 지적이었다. 왜냐하면 세속적 이상주의자들과 종교적 이상주의자들은 적절한 교육에 의해서건 종교적 자비심에 의해서건 개인들의 이기심을 은폐함으로써 사회를 변화시키기를 희망했기 때문이다. (...) 개인과 집단의 행동에 관한 나의 보다 일관된 ‘현실주의’에 비추어볼 때, 그 책에는 『덜 도덕적인 사회에서 그렇게 도덕적이지 않은 인간(*The Not So Moral Man in His Less Moral Communities*)』이란 제목이 더 어울렸을지도 모른다”(니부어, 2016: 20-21).

이처럼 니부어는 그의 저서들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개인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본성상 선하다는 성선설적 입론이나 이성적 능력을 통해 도덕성을 계발·증진할 수 있다는 근대 계몽주의적 입론 등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거나 부정적으로 배척해 버린다. 그에 의하면 개인의 도덕적 실상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개인은 자신 있게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성적 통찰력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의 도덕적 의견을 수용한다. 비록 그들이 스스로 도덕적 판단을 행할 경우에도, 자신이 판단한 도덕적 가치에 대한 의무감이 사회적 비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만큼 강력한 것인지는 자신할 수 없다”(니부어, 2006: 67).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니부어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보는 입장에 대해, 기독교 신앙의 교리를 끌어와 그렇지 않다고 썰기를 박는다. 곧 “기독교 신앙에 의하면 인간의 본성은 본래 이기심과 사회적 성향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전자가 후자보다 더 강하다. 이러한 주장이 기독교적 현실주의의 토대이다”(니부어, 2016: 40).

이러한 진술에서 엿볼 수 있듯이, 니부어는 개인의 경우에 교육이나 지성의 힘을 통해 도덕성을 일정 정도 계발·고양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성적 능력이 본능이나 충동, 이기심을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는 결코 낙관하지 않는다.

“이 책이 논쟁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할 때, 그것은 종교적이건 세속적이건 도덕주의자들을 향한 것이다. 그들은 개인의 이기심이 합리성의 발전이나 종교적 선의지의 성장에 의해 점진적으로 견제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과정이 계속 진행되어야만 모든 인간 사회와 집단은 사회적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가정들에 바탕을 둔 도덕가, 사회학자, 교육가들의 사회 분석과 예측은 결국 우리 시대에 매우 심각한 도덕적·정치적 혼란을 가져왔다”(니부어, 2006: 10-11).

게다가 그 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니부어는 이성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근대 합리주의 및 이상주의의 낙관론적 입장을 신랄히 반박하면서 다분히 부정적이며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표명한다. 이 점은 다음의 인용문들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오늘날의 교육가들은 모든 시대의 합리주의자들처럼 삶에 있어서 이성의 기능을 지나치게 신뢰한다. 그러나 인간의 집단적 행동에 의해 형성되는 역사 세계는 이성이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성에 의해 결코 정복되지 않을 것이며, 사실 역사 세계 자체는 이성적이지 않은 세력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니부어, 2006: 14-15).

“인간의 이성은 항상 어느 정도는 사회적 상황 내에서 이해관계의 노예이기 때문에, 사회 불의는 교육가와 사회과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바와 같이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권고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니부어, 2006: 13).

2. '약한 상대적' 대비 구도로서 '도덕적 인간 대 비도덕적 사회'

다음으로, 니부어가 제시한 '도덕적 인간 대 비도덕적 사회'라는 대비적 구도는 통상 이제껏 이해되어 온 것과 달리 '강한 절대적 비교'가 아니라, '약한 상대적 비교'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헤리스, 2016: 86). 아울러 이러한 상대적 비교를 통해 니부어는 '개인윤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윤리'의 관점을 제공하고자 할 뿐 아니라, 개인의 도덕성 계발과 함양을 통한 도덕적 인격체로서의 완결을 당연시한 개인윤리적 접근 방식의 '근거 없는 안일함'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하고자 한다.

해서 약한 상대적 비교 구도에 관해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잘 알려진 것처럼, 니부어가 열정적으로 활약하던 시기는 신앙적 차원에서 개진된 '사회복음주의'¹⁰⁾, 그리고 사상적 차원에서 등장한 계몽주의적 이상주의가 당시의 주도적인 시대 흐름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때였다. 한데 양자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한 존재이며 교육과 이타주의 등을 통해 한층 도덕성을 함양한 존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인간 사회 역시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낙관적 긍정적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었다.

10) 사회복음주의(social gospel movement)란 기독교 지식인들이 주도한 진보적 신앙운동을 말하며,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한 존재이며 교육과 이타주의를 통해 사회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헤리스, 2016: 13).

그러나 니부어는 그러한 견해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간 사회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전까지는 결코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다는 현실적 사례를 거명하면서 그러한 낙관주의적 이상주의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였다(해리스, 2016: 13). 그와 함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간의 ‘선명한 이분법적 대립적 구도’의 제시를 철회코자 하는 입장을 드러내었다. 이 점을 저명한 니부어 연구자인 해리스(R. Harris)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훗날 니부어는 이 책에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를 극명하게 대비시킨 것을 다소 후회했으며, 차라리 ‘비도덕적 인간과 더욱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제목이 우리의 현실을 더욱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해리스, 2016: 13).

이처럼 흔히 우리가 이해해 온 것처럼 개인은 도덕적 주체인데 반해 도덕적 개인들로 구성된 인간 집단은 부도덕한 존재라는 ‘정형화된’ 교조적 도식은 실상 니부어의 진정한 의도가 아니다. 비교 상대주의적 시각에서, 인간 집단에 비해 개인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좀 더 도덕적이며 이성적인 주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몽주의를 비롯한 이상주의적 입론들이 주창하듯이, 거의 절대적으로 도덕성을 완비한 도덕적 주체는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의 도덕성에 대한 너무 관대한 평가는 인간이 처한 상황의 차원들에 대한 잘못된 평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자유민주주의 문화의 사회적·정치적 태도들은 본질적으로 무해한 개인이라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념에 토대를 두고 있다”(니부어, 2017: 44).

이로부터 엿볼 수 있듯이, 오히려 ‘비도덕적인 인간’에 가까운 존재가 개인이라는 부정적이며 현실주의적인 시각이 니부어의 인간에 관한 이해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가 보기에 개인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강한 이기적 충동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도덕과 이성을 넘어설 만큼 강력하다. 그런 한에서 니부어가 파악하는 인간은 한 마디로 비도덕적인 ‘이기적 존재’(고범서, 2007: 136; 심승환, 2018: 30)이다.

3. ‘도덕성 고양을 통한 성숙한 도덕적 인격체로의 성장’ 테제 거부

앞서의 논의에서 밝혀진 것처럼, 그 같은 니부어의 진의를 제대로 간취할 경우, ‘도덕적 인간 대 비도덕적 사회’로부터 이끌어 나온 ‘개인윤리 대 사회윤리’라는 두 가지 상반된 윤리적 조망들의 정초 속에 담긴 니부어의 윤리학적 의도, 특히 개인윤리의 ‘내적 모순’에 관한 비판적 통찰의 핵심 또한 온전히 파악할 수 있다.

무엇보다 윤리적 조망 틀을 것처럼 이원론적 접근방식으로 구분하게끔 유인한 주된 계기였던

‘개인윤리의 난점’에 대해 니부어는 두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탐색하고 있다. 즉 한편으로, 새롭게 등장한 사회 구조적 모순이나 비윤리적 병리 현상은 기존의 개인윤리의 시각 및 관점에서는 제대로 포착하여 해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른 한편으로, 비록 사회 내부의 고유한 구조적 부도덕성은 해명하지 못한다고 해도 개인의 윤리의식과 선의지의 강화를 통한 도덕적 개인으로의 발전적 진화 및 귀결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개인윤리적 입론에 대해, 강한 회의와 부정적 진단을 내리면서 이를 ‘근거 없는 낙관론’에 불과하다고 일갈한다.

한데 이제껏 니부어의 윤리사상에 관한 해석과 평가는 주로 전자에 초점을 맞추어 통상 이루어져 왔다. 이런 연유로, 니부어는 개인윤리의 한계를 뛰어 넘어 새롭게 사회윤리학의 지평을 개창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선도적인 사회윤리 사상가로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후자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제대로 된 논의와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로 인해, 니부어의 윤리사상 체계 내에 자리하고 있는 개인윤리는 근대 계몽주의 및 합리주의에 뿌리를 둔 기존의 개인윤리 체계를 고스란히 ‘답습한 것’으로 당연시되고 있다. 다시 말해 니부어의 ‘개인윤리 대 사회윤리의 도식’ 속에 위치한 개인윤리 역시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등에 의해 규정된 ‘자율적·도덕적 주체’로서의 개인관이 내장된 전통적인 윤리적 접근 방식으로 읽혀지고 있다. 그에 따라 중고등학교 현장에서도 이러한 시각에 의거해 ‘본성상 개인은 도덕적 존재인데 반해, 집단으로서의 인간이나 인간 사회는 부도덕한 존재’라는 메시지가 마치 니부어 사상의 핵심 인양, 아무런 의심 없이 자연스레 수용되고 있다.

이렇듯 니부어의 윤리사상 내에는 ‘개인의 도덕성 발달과 도덕적 존재로의 발전적 성장’을 ‘필연적인’ 것으로 예견하는(이창희, 2019: 476) 개인윤리가 여전히 유효한 입론으로 수용되고 있다는 해석 및 평가가 윤리사상 분야나 학교 현장에서 주류를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미 수차례 언급한 것처럼, 니부어의 사상체계는 ‘개인은 도덕적 주체’라는 테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는 니부어의 인간관, 특히 개인적 존재에 대한 ‘부정적·비관적 관점’에 비추어, 그가 대하고 다루는 개인윤리에 관한 태도 역시 기존의 전통적인 접근방식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말해준다.

4. 근대 계몽주의 및 합리주의에 기초한 ‘이상주의적 인간론’ 논박

주지하다시피 개인윤리는 근대의 합리주의 및 계몽주의 사상의 등장, 그리고 집단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개인의 탄생’(박정순, 1993: 34-35)과 맞물려 그 입지를 다진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확고한 윤리적 접근 방식으로 자리 잡아 왔다. 개인윤리는, 이성의 비판적 성찰력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비도덕성을 극복하고 윤리의식을 회복 강화함으로써 한층 더 성숙한 도덕적인 인간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주장하는 윤리적 입론이다. 더불어 그 같은 윤리적 개인들로 구성된 인간 집단은, 보다 완결적 형태로 승화된 윤리적 개인들의 인식과 판단, 행위를 통해 그 논리적 귀결로서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도덕적 사회의 상태로 진화·발전해 나간다고 단언한다.¹¹⁾

그러나 니부어는 이처럼 개인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지극히 낙관적인 진보주의 논변에 대해 신랄한 비판적 논박을 가한다. 먼저, 개인은 ‘제한적으로나마’ 이성을 통해 도덕적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있어 이성은 비이성적 충동 등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이기적 욕망 등을 강화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 탓에, 개인은 도덕적 존재로 거듭 나기가 결코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그 반대로 한층 더 이기적이며 부도덕한 주체로 변모되어 나갔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성의 발달은 양심이 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킨다. 그러나 양심 자체의 힘을 강화시켜 주는지는 의심스럽다. (...) 이성은 이기주의를 설부르게 정당화할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비이성적인 자연에서는 그것이 가질 수 없는 힘을 이성에게 준다. 인간의 자기의식은 이성의 산물이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 및 환경과 관련시켜 바라봄으로써 자기를 의식하게 된다. 이 자기 의식은 생명을 보존하고 연장하려는 충동을 강화시킨다”(니부어, 2006: 71-73).

이 같은 개인관 및 개인윤리에 관한 비판적 반론은 궁극적으로 근대 계몽주의 및 합리주의 사상 그리고 그에 기반을 둔 자유주의나 사회주의를 포함하여 ‘인간 이해’에 관한 ‘낙관론적 이상주의적’ 논변들을 ‘모두’ 겨냥한다(니부어, 2015: 64-73).

“현대사는 인간의 병적 흥분과 맹렬한 분노로 점철되어 있으며, 자연의 조화를 파괴하고 합리적 제재수단인 지혜로운 규범들을 무시하는 인간의 악마적 능력과 마성을 보여주는 증거들로 가득하다. 그렇지만 근대인은 인간에 관해 낙관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니부어, 2015: 171).

‘근대인’으로 비유된 계몽주의를 비롯한 근대의 이상주의적 사상 체계들은 오늘날 실제 사회의 현실태가 이처럼 심각한 수준에서 부정적이며 파괴적인 비관적 실상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근거 없는 낙관론에 봉착하고 있다. 이를 니부어는 “근대인의 단일한 도덕관념”(니부어, 2015: 169 이하)이라고 일갈한다. 더불어 그러한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예를 다음과 같이 적시한다. “인간의 덕은 이기적인 충동을 억제하고 자비심을 선호하는 이성에 의해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믿음은 근대 사상의 두드러진 경향이 되었다”(니부어, 2015: 189).

11) 이에 대해 니부어는, 계몽주의를 비롯한 근대적 이념 체계들이 추구했던 역사발전은 현실에서 한계에 봉착하고 말았는바, 이는 ‘유한한 인간’이 ‘이성의 한계’를 잊어버리고 정치와 경제를 막론하고 ‘권력의 의지’를 남용한 점에 기인한다고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다(유경동, 2021: 195-196).

이처럼 근대의 합리주의적 이상주의 입론들의 인간관 및 이성관에 대해 퍼붓는 니부어의 신랄한 비판적 공격은 마침내 근대 사상의 본원적 원천이라 할 18세기 계몽주의와 그것의 인간 및 이성 이해에서 그 정점을 찍고 있다.

“인간의 지성이 성장하면 자동적으로 사회 불의가 제거될 것이라는 믿음은 사실상 18세기 계몽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성의 시대에는 사회 불의와 중세적 전통 및 미신들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 중 어느 하나만 제거하면 나머지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당연한 듯이 결론지었다. 이성의 시대를 열렬하게 옹호했던 사상가들 중 하나인 콩도르세는 자기 세대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했다. ‘교육의 일반화와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 필연적으로 이상 사회가 실현될 것이므로 태양은 이성 이외의 어떠한 지배도 받지 않는 자유인들의 세상을 비추게 될 것이다. (...) 계몽주의 시대에 만연했던 이러한 신앙은 지금까지도 교육가들의 신조로 남아 있으며 심지어는 일부 철학자와 심리학자 그리고 사회과학자들한테까지 퍼져 있다. 그러나 그 같은 신앙은 현대 문명의 참당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일부만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니부어, 2006: 51-52).

IV. ‘잠정’ 결론 및 몇 가지 제언

지금까지의 분석적 논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니부어 윤리사상의 핵심 표제어인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 담긴 함의와 핵심 논지, 문제의식 등을 니부어의 이론(구성)적 의도에 주안점을 두고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그로부터 나온 잠정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의 도식과 그로부터 도출된 ‘개인윤리 대 사회윤리’ 간 범주적 구분에 내재된 니부어의 인간관 및 이성관은 ‘다분히’ 반(反) 합리주의적·계몽주의적 특성을 함유한 것으로서, ‘이상주의’에 배치되는 냉정한 ‘현실주의’에 기반을 둔 것이다. 요컨대 개인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그리 도덕적인 주체가 아니며, 오히려 이기심과 충동 등에 지배되어 행동하는 경향이 큰 ‘부도덕한’ 존재로 간주될 여지가 많다. 동시에 개인이 지닌 이성적 능력은 이상주의자들이 주창하듯이 본능적 욕구나 이기적 욕망을 온전히 제어하지 못하며 오히려 그것들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빈번히 이용된다.

둘째,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인간 집단’ 간의 대비적 구도는 ‘강한 절대적’ 구분이 아니라 ‘약한 상대적’ 구분이다. 인간 집단으로서의 사회가 비도덕적 존재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은 도덕적 행위자이기는 하지만 이는 ‘비교 우위적인’ 것일 뿐, 개인 역시 절대적으로 도덕적 주체라

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 만큼 실제 일상적 삶의 세계에서 개인적 존재는 인간 집단 못지않게 이기적이며 사악한 부도덕성을 여지없이 드러내 보이는 존재이다. 해서 니부어는 이 구도를 ‘비도덕적 개인과 보다 더 비도덕적인 사회’로 개칭하는 것이 나왔을 것이라고 술회(述懷)하고 있다.

셋째, ‘개인윤리 대 사회윤리’의 범주적 구분에 의거해, 개인윤리를 향해 니부어가 제기하는 비판적 지적의 핵심은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초래된 새로운 비윤리적 현상에 관한 해명 및 해결력의 결여’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에 더해 ‘개인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의 강화를 통해, 사물이 자연법칙을 따르듯이(이창희, 2019: 474), 도덕적 인격체로 완성되어 나간다’는 이상주의의 과도한 ‘필연적’ 낙관론을 논박·거부하는 데 있다. 적어도 후자는, 니부어가 자신의 사상 체계 내에서, 사회윤리의 윤곽을 정초하는 한에서는 개인윤리의 한계 및 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개인관이나 윤리적 주체로의 발전적 전환 등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근대의 이상주의적 개인관과 그에 터한 개인윤리를 여전히 계승하고 있는 양 읽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각별히 유념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의 잠정적인 결론이 나름 타당하고 정당한 근거를 지닌 것이라면, 적어도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니부어 사상 관련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잘못된 내용과 지식, 정보와 논지 등이 있다면 그것들은 ‘올바른 형태와 수준’으로 가능하면 즉각 시정되고 수정·보완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비판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논자는 윤리교육과 관련된 ‘교과 교육학’에 관한 전문 연구자가 아닌 탓에, 함부로 그 대안적 방안이나 내용, 형식 등을 논할 처지에 있지 않다. 해서 사회철학 및 사회윤리학을 주된 논구 과제로 삼아 탐구해 온 ‘내용학’ 전공자로서, 니부어 윤리사상의 핵심 테제를 둘러싸고 이루어진 해석상의 문제점과 한계 등을 지적하는 데 머물고자 했다. 그런 만큼, 학교 현장에서의 문제적 사태와 관련한 ‘실천적 해소 및 해결’ 방안에 관해서는, 논자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과 견해를 ‘단초적(緘縮的) 수준’에서 제언의 형태로 몇 가지 개진해 보는 데 한정하고자 한다.

우선, 가장 시급한 사안은 니부어 윤리학에 대한 전문 연구자를 비롯해 실천철학 및 사회윤리학 분야를 탐구하는 ‘내용학’ 전공자들과 윤리사상 관련 ‘교과 교육학’ 전공자들 사이의 치열하면서도 협업적인 상호 비판적 검토 및 논의, 토론 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간의 대비적 도식을 둘러싼 잘못되거나 왜곡된 해석, 모호한 의미 파악, 의도하든 아니든 오독되거나 곡해된 내용 등에 관한 밀도 높은 비판적 고찰을 통한 타당성 검증 및 확증 작업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그러한 검토 및 논의 과정을 거쳐 검증되고 확증된 사실과 내용, 진의 등을 중심으

로, 학교 현장에서 활동 중인 해당 과목 담당 교사들과의 '만남'이 또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모임을 통해 '잘못되고 왜곡된' 해석이나 평가 등을 알리고 그에 대한 집중적인 상호 토론 및 확증 과정을 거쳐 잘못된 내용이나 오류 등을 상호 이해 및 동의하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해서 그 자리에는 해당 교과 교육 전공자와 전문 학자 뿐 아니라, 윤리학을 비롯한 실천철학과 정치사상, 교육학 등 관련 분야 전공 학자들도 함께 참여하여, '보다 나은 논증의 힘'에 기반을 둔 자유로운 토론과 논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선우현, 2020: 116-117).

끝으로, 전문 연구자들과 교사들 간에 이루어지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토론과 논쟁의 장(場)에서는, 왜곡되거나 곡해된 내용과 사안에 관한 정정과 보완, 비판적 재구성의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자 누구나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작업에는, 기존의 잘못된 해석과 해명을 대체할 합당한 대안의 마련과 또 다른 혼란이 초래되지 않게끔 미리 방지하는 방안을 포함한 새로운 교수법이나 수업 방식의 강구 등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런 만큼, 이론적 분야에서 전문가적 식견을 지닌 연구자들과 현장 수업(방식)에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 간의 상호 긴밀하고도 유기적인 '협업적'이며 동시에 '분업적'인 탐구 작업이, 보다 체계적이며 생산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러한 논의 및 토론 과정의 기저에는 공교육의 가장 핵심적 주체인 '학생'들에게 특정 주제나 사안과 관련하여 '참된 진리 체계'가 전달되어야 '만' 한다는 교육자의 '책무적 소명의식'이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¹²⁾

※ 논문 투고일: 2024. 1. 3. ※ 논문 수정일: 2024. 7. 3. ※ 게재 확정일: 2024. 8. 30.

12) 여러모로 부족한 글을 심사해 준 익명의 세 분 심사자 선생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특히 논자보다도 더 치열한 문제의식을 갖고 세세하게 평가하고 대안적 조언 등을 개진해 준 심사자 선생님들의 성의와 노고에 그저 과분한 마음이다. 다만, 논자의 일신상의 사정과 게으름 등으로 인해, 귀한 심사 내용을 온전히 수용해 반영하지 못하게 됨을 그지없이 송구하게 생각한다. 처음 심사 내용을 받고선 가능하면 전면적으로 수정·보완해 보고자 했지만, 그러기에는 좀 더 많은 검토와 조사, 공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죄송함을 무릅쓰고 각주를 통해 짧게나마 답변해 보는 것으로 감히 그 애쓰에 갈음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한 심사자 선생님은 “실제 공교육 현장에서 그런 오독은 일부이거나 가능성 정도이지 결코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언급해 주었다. 비록 전적인 것은 아니지만, 논자 역시 이에 일정 정도 공감하는 바이며 부분적으로 이를 수용하였다. 전수조사를 비롯해 현장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칫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이에 대해서는 이후 보다 면밀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기에, 논자 또한 그러한 오독 및 곡해가 ‘일반화되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비록 ‘일부 혹은 가능성의 차원이라고 해도 그 실태는 결코 녹록치 않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그러한 왜곡의 ‘현실적 경향성’이 지닌 위험성(?)에 대한 일종의 경고 내지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그 같은 사태를 비판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해서 같은 심사자 선생님이 “니부어

관련 중고등학교 수업 현장에서 오해 또는 오독의 가능성을 염려하는 정도로 톤다운 시킨다면 본 논문의 논리가 보다 설득력 있다고 본다'는 비판적 조언이 보다 '중용적인 합리적 태도'라는 것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경각심을 고취해 보기 위해 다분히 의도적으로 논문의 톤을 보다 '세계' 높인 것이라는 점을 감히 말씀 드린다. 아울러 논자와 심사자 선생님을 비롯하여 니부어 관련 수업 현황에 관심 있는 교육자나 연구자들이 이후 실제 수업 실태에 관한 경험적·분석적 조사 등의 후속 탐구 작업을 통해 명쾌한 규명과 그 해소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동시에 그러한 차원에서 본 논문의 기획 의도를 헤아려 주었으면 한다. 그 외에도 몇몇 세부 사항에 대한 심사자 선생님들의 제언의 경우도, 논자 역시 큰 틀에서 공유할 수 있는 것이었다. 다만, '다소간 과장된 어법'을 통해 사안의 심각성을 드러내 보이려는 애초의 의도에 따라, 거칠게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좀 더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데 주안점이 두어진 논지 전개 방식을 '고심 끝에' 유지키로 한 탓에, 일부분만 반영된 점에 대해서도 너른 양해를 세삼 부탁드린다.

〈참고문헌〉

- 고범서(2007). **라인홀드 니버의 생애와 사상**. 서울: 대화문화아카데미.
- 김국현 외(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서울: 비상.
- 김병권(2004). 라인홀드 니버의 사회윤리와 교회 이해. **복음과 실천** 34.
- 노영준 외(2018). **중학교 도덕 2**. 서울: 동아출판.
- 니부어, R.(2006).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이한우 역). 서울: 문예출판사.
- 니부어, R.(2015). **인간의 본성과 운명 1, 2**(오희천 역). 서울: 종문화사.
- 니부어, R.(2016). **인간의 본성과 공동체들**(오희천 역). 서울: 종문화사.
- 니부어, R.(2017).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오성현 역). 서울: 종문화사.
- 문시영(2022).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니버의 한국적 읽기와 과제. **장신논단** 54(1).
- 박정순(1993). 자유주의 대 공동체주의 논쟁의 방법론적 쟁점. **철학연구** 33.
- 박찬구 외(2019).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서울: 씨마스.
- 선우현(2020). **도덕 판단의 보편적 잣대는 존재하는가**. 서울: 울력.
- 손봉호 외(1999). **사회윤리의 실제**. 서울: 학문사.
- 심승환(2018). 라인홀드 니버의 인간 이해와 사회 정의 이론을 통한 교육방향 고찰. **한국 교육학 연구** 24(2).
- 유경동(2021). 라인홀드 니버의 모더니즘 이론에 대한 소고.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9.
- 이국현(2013). 라인홀드 니버의 인간 이해와 경제 정의. **신학사상** 162.
- 이창희(2019). 현실주의 정치철학의 도덕관. **윤리교육연구** 51.
- 이한우(2006). 율긴이의 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R. 니부어 저). 서울: 문예출판사.
- 이호중 외(2018). **중학교 도덕 2**. 서울: 해냄에듀.
- 정원규(2002). 현대사회와 윤리 개념의 분화: 사회윤리와 개인윤리. **철학연구** 59.
- 정창우 외(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서울: 미래.
- 차우규 외(2018).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서울: 금성출판사.
- 최경석(2017). 라인홀드 니버의 인간론을 통한 실현가능한 정의. **기독교사회윤리** 39.
- 해리스, R.(2016). **라인홀드 니버**(안태진 역). 서울: 비아.
- 황경식(2008). **개방사회의 사회윤리**. 서울: 철학과현실사.
- Niebuhr, R.(2008). *The Irony of American Histor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Niebuhr, R.(2011). *The Children of Light and the Children of Darknes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Niebuhr, R.(2021).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Must Have Books.

〈Abstract〉

**Misunderstanding and Misreading of the Implications of Niebuhr's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Reflections on Public Education's Interpretation of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Sunwoo, Hyun¹

The diverse interpretations and approaches to understanding Niebuhr's thesis of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which encapsulates the essence of his ethical ideology, have led to considerable misunderstandings and distortions. This issue is particularly concerning, as incorrect explanations and content regarding his ethics are found in middle and high school textbooks.

In light of this problem,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the fundamental implications and true theoretical essence embedded in Niebuhr's thesis, aiming to fully elucidate its reality

. The 'provisional' conclusion reached is as follows. First, Niebuhr's perspective on humanity and the rationale inherent in the framework of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and the subsequent categorical differentiation between 'Individual Ethics versus Social Ethics,' exhibit anti-rational and anti-enlightenment characteristics. They are grounded in a cold 'realism' that contrasts with 'idealism' Second, the juxtaposition between 'Moral Man (Individual) and Immoral Society (Human Group)' represents a 'weak relative' distinction. Niebuhr figured that renaming it as 'Immoral Man and Even More Immoral Society' might be more appropriate. Third, Niebuhr's critique of individual ethics extends beyond addressing the failure to explain and resolve new unethical phenomena at the societal level. It also challenges the overly optimistic notion of idealism that asserts 'individuals are completed as moral personalities through reinforcement of morality.'

Keywords :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Immoral Man and Even More Immoral Society, interpretive misunderstanding, realism, weak relative distinction, excessive necessary optimism

1. Professor, Ch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hyunsunw@cje.ac.kr